



尹 太 鉉

森園建築  
代表



“멋있다”—世上에 이렇게 멋있는 말은 없다. 이  
以上 더 氣分 좋고 시원하고 무어라 表現할 수 없  
는 뜻을 가진 말은 없다고 본다.

“멋있게 살고 싶다” 누구나 마음 속에 지니고  
있는 心情이 뜻대로 되지않는게 人生이겠다. 해서  
自己 慾求를 이루지 못하여도 他人이 이를 成功하  
였을 때, 滿足하는 것이 亦是 一種의 人間本性, 멋  
밖에 없다고 본다.

“나포레온”이 코르시카의 孤島에서 佛皇帝가  
되기까지, 無數한 에피소드가 우리에게 “멋”이  
란 共感을 갖게 하는 것이다.

\* \* \*

人間은 原來, 衣食住 解決만으로 滿足하지 않는  
것이 他 動物과 다른 点이다.

단칸 蕘房에 죽을 먹고 나와도, 택시나 커피, 팁  
등은 億萬長者 된 氣分으로 쓴다. 高級住宅에 最  
高 사치품으로 몸을 장식하고 連日 山海珍味の 生  
活이면서 어딘가 마음은 비어있고, 무엇인가 變化  
를 바라는 것이 또한 人間인 것이다.

“제 멋에 산다” 죽을 먹고 이를 썩시거나, 바지  
저고리에 넥타이를 하고 다니거나 꿈보거나, 열간  
이하고 살거나, 남이야 어떻든 自己 종와 사는 사  
람, 即 제멋에 사는 사람이 많다. 〈집씨와 노틀  
담의 꿈추〉에서 느끼는 것이 그 例라 볼 수 있다.

\* \* \*

造物主는 萬物을 妙한 調和로 創造하였다. 山에  
나무가 있고 골짜기에 물이 흐르고, 거기에 動植  
물이 번식하는데 여기 나무잎 하나 들꽃, 微生物  
에 이르기까지 제나름 대로의 멋(?)을 지니고 있  
다는 것이다.

〈토끼와 거북이〉, 〈배짱이와 개미〉, 〈이솝의 童  
話〉의 이야기에서 各己의 멋을 자랑하고 있다. 그

러나 멋은 가진 側과, 알아주는 側이 서로 맞아야  
한다. 即 自己의 멋을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이것  
참 답답하고 不幸한 일이다. 제아무리 멋있는 아  
이디어, 멋있는 作品도 제멋에 치우쳐서는 안될  
것이다.

\* \* \*

멋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다고보다도 大部分  
일 것이라는 것은 얼마나 不幸한 일일까. 勿論 그  
것도 멋이라 하겠지만……

시가를 문 “처칠”의 모습, 선그라스에 파이프와  
맥아티에서, 李舜臣將軍의 閑山島 詩에서도, 모나리  
자의 永遠한 微笑에서도, 半白의 老人像, 乳兒와  
母親像 등, 가깝고 먼곳에 우리는 멋을 느끼게 한  
다. 湖水가의 하얀집, 거기에 사랑하는 사람과 단  
둘이…… 為先 生寬만 해도 멋지다 할 것이다.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하고 億台를 모은 老婆  
가 被殺된 報導가 있었다. 結局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게된 것이다. 멋없는 본보기다.

\* \* \*

멋은 마음의 余裕없이는 느낄 수 없다고 본다  
이는 貧富의 差없이 逆境에서도 忍耐와 努力으로  
目的을 達成하였을 境遇 나타난다. 제아무리  
돈 많고 잘 산다 해도 마음이 비어있고 不安하  
여 사는 보람을 모른다면, 다시 말해서 멋을 모르  
고 있다면, 이는 결코 幸福한 사람은 못된다고 斷  
言하고 싶다.

反面에 가난하게 살면서도 살림이 늘어가고 子  
女 教育이나 社會에 利益을 주면서 멋을 알고 산  
다면 이보다 더 幸福은 없을 것이다.

돈을 많이 뿌려 지은 집이라도, 여기에 사는 사  
람이 멋이 없고, 멋을 모른다면, 또는 市場이나

工場地帶에 세워졌다면 別로 價値를 주지 못할 것이다.

\* \* \*

많은 對象中에서 어느 하나를 고른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筆者는 벅타이 하나를 사는데 市中 店舖를 終日 헤맨적이 있었다. 조그만한 物件을 사는데도 이렇게든 하물며 一生을 위탁할 수 있는 집(住居)을 택하는데야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고 主張할 것이다. 사람마다 멋을 보고 멋을 느끼는 角度가 千差萬別이다.

고기잡이는 해가 바다에서 뜬다고 主張 하지만, 나무꾼은 해가 산에서 뜬다고 主張할 것이다. 사람마다 멋을 보고 멋을 느끼는 角度가 千差萬別이다. 왜냐하면 멋이란 一定한 規定이 없는 것이다. 제야무리 名畫나, 絶世美人이나, 조각 彫刻品이라도, 이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 別로 쓸모있는 것이 못된다.

따라서 우리가 作品을 낸다 해도 作者와 審査者와의 呼吸이 맞아야 한다는 것이며, 通話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다.

\* \* \*

집이란 生活의 容器라고 말한다. 거기서 삶을 營爲하는데 生命을 保護하면서 保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常識에 屬한다. 따라서 寒暑 風雨를 막고 寢食, 休養, 條件을 充足시켜야 한다. 여기서 建築家는 이러한 條件을 滿足할 수 있는 最善의 設計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더욱 重要한 要素를 빠트리고 있다는 事實을 알아야 한다. 即 멋을 잊고 있다는 것이다. 校服입은 女學生 같은 集團 住宅群이 곳곳에 있다. 손바닥 만한 庭園에 花草나 樹木도 없이 그나마 工場의 黑煙에 덮이거나, 便所의 惡臭를 풍기거나 騒音 때문에 잠도 잘 수 없거나 등등에도 그나마 참고 살아야 한다.

\* \* \*

勿論 人間이란 環境을 支配할 수 있으면서 環境에 順應하는 動物이기 때문에 板子집이나, 洞穴에서도 살기는 산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멋에 屬하거나 或은 마저못해 살거나일거다.

草家三間이라도 내 집이 第一이며, 情들면 고만이라는 말에도 一理는 있다. 事實 우리는 大部分 農村의 초가집에서 잘 살아왔다. 愛着心도 많다.

굴속 같은 어두컴컴한 방에서 먹고 자고 자라

나서 문고리 하나에도 情이 들어있다. 그나름대로 멋이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電子時代 宇宙時代に 當面하고 있다. 生活이 바빠졌다. 人口는 자꾸 늘어나고 食糧도 더욱 不足하게 되었다. 따라서 在來 習性을 벗어나, 生活樣式의 改良이 不可避하게 되었다. 미니를 白眼視하던 때도 벌써 지난 것이다.

\* \* \*

그렇다고 過去를 덮어 놓고 度外視하거나 流行에만 쫓는다는 것은 아니다. “過去事는 如 明鏡”이라 하였다. 때와 場所에 따라 韓服이 아주 멋지게 보일때가 많다. 우리가 故鄉이나 祖國을 잊을 수는 없듯이 김치나 된장맛을 아주 저버리지 못하듯 우리나라 固有의 樣式에서 멋을 찾아야 한다.

洋食에다 韓服을 입고 席居生活를 주로 한다 해도 外國의 멋있는 造形을 그대로 模倣한다 해도 어딘가 우리의 냄새를 감출수 없이 풍긴다는 事實을 否認할 수 없다. 美國이나 歐州에다 景福宮이나 德壽宮같은 집을 지은 것과같이 外國의 멋있는 最新 建築이라 해서 韓國에 그대로 짓는다고 하면 이는 썩 어울린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政府綜合 庁舍設計를 筆者가 審査한 結果 數十件을 指摘, 修正시킨 것中 가장 骨子는 韓國의 環境이나 實情에 맞지 않는 点이다.

어느 物體나 均衡이 잡히고 색깔이 좋아 비면 爲先 아름답다(美)고 느낀다.

卓上의 花盆의 꽃이나 잎이 잘 配列되고 그 옆에 脚線을 露出한 미니 少女가 讀書하고 있는 모습이 室內의 은은한 霧田氣와 調和된 情景은 한 마디로 멋있다. 푸른 湖水에 白鳥가 놀고 짙은 樹木 높은 산을 背景으로 붉은 벽돌과 흰 발코니로 된 別莊을 想像해 보자. 여기에 달콤한 사랑의 보금자리를 누린다면, 누구나 멋지다 느끼지 않을 것이다.

모든 形態는 點으로 부터 始作하여 이點의 連續으로 線이 되고 交叉하면 面이 생기고 다시 面과 面이 重復되어 立體를 이룬다는 것은 初步의 常識일 것이다. 이 點, 線, 面, 등이 各己 大小 強弱, 重輕, 粗明, 그리고 位置方向에 따라 여러가지 性格을 나타내면서 색깔의 效果와 周圍環境의 調和如何로, 美를 우리에게 느끼게 한다.

\* \* \*

멋은 美와 相通하지만 美以上の 價値와 性格을

가졌다고 본다.

제 아무리 美人이라도 教養없는 言辭 節操 없는 行動을 한다면, 멋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建築은 綜合藝術이라고 한 것은 여러모로 適切한 表現이다. 繪畵와 彫刻이 空間藝術, 音樂이나 映畵를 時間藝術의 領域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反하여, 建築은 時空을 合한 藝術인 것이며 더욱더 生活과 直結되어야 한다는데 그 重要性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演奏할 때 樂士와 콘달타는 聽衆의 渾然一體가 됨으로서 비로소 그 名曲은 빛을 보는 것과 같이 여기에 建築은 計劃으로 부터 設計, 施工에 이르기까지 名 콘달타가 되는 同時 永久 保存과 安全生活를 責任져야 한다는 것이다.

\* \*

이 世上에 醜은 사람은 있어도, 똑같은 사람은 없다고 본다. 쌍둥이가 아무리 모습이 같다 해도 그 속까지 같을 수 없으며, 어딘가 區別하게 마련이다.

똑같은 집이 있을 수 있을까? 住宅團地다, 標準住宅이다, 集團住宅이다 하지만 그 속에 사는 사람의 生活 樣式은 각기 같을 수 없을 것이다.

사람의 生涯는 血統, 地緣, 骨格등 先天的인 것과 習性, 教育, 環境등 後天的인 것으로 大別할 수 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해도 잘못 길을 들어 一生을 그르친 例가 얼마든지 있다. 똑같은 苗木이라도 陽地바른 곳에 잘 가꾼 나무는 茂盛하게 자라는 反面 험한 岩石, 山 비탈에서 그늘지게 자란 나무는 尙상할 것이다. 집도 마찬가지로 理致라 본다.

\* \*

흔히 “平面 機能이 좋다”, “立面이 멋있다” 면 設計는 거의 끝난 것으로 안다. 勿論 構造나 設備面을 除外한 것은 아니지만 大體的인 觀念이 그렇다는 것이다.

建築主가 어느 設計平面을 들고 와서 이와 똑같은 집을 設計해 달라고 하는 때가 왕왕 있다. 이는 設計라기 보다 그대로 배껴서 許可나 내 달라는 것이겠다. 그런가 하면 아주 송두리째 떠맡기고 處分만 기다리는 樂天派(?) 寬容派도 있다. 前者는 남이 사는데로, 남이 하는데로 한다는 主張이요, 後者는 自己 것을 몽땅 내 놓는 말하자면

쓸개라도 빼주는 격이다. 모두가 얼듯 自己가 사는 집인지 아닌지 錯覺하고 있나보다.

\* \*

反對로 建築家는 남의 집을 設計하면서 自己집으로 錯覺할 때가 있다.

“설렁탕”을 좋아하는데 “돈까스”를 원하는格으로 모두가 넌센스이다.

大概의 境遇 “멋장이”라면 爲先 누구보다도 季節에 敏感하고, 그때 環境에 잘 어울린다고 보는데, 무엇보다도 環境에 어울린다는 問題가 더 重要하다고 본다. 工場에서는 作業服의 모습, 海水浴場엔 水泳服이, 登山에는 잠바차림 등, 環境에 맞는 옷차림에서 비로소 멋은 生길수 있다고 본다.

“세단”이 시골 흙탕길을 간다든가 쪽뻐 紳士가 工事 現場에서 있거나 시골 處女가 明洞거리를 活步하는 등 얼듯 멋 있다 할 수 있겠는지?

\* \*

제아무리 名排優요, 脚本이 잘되었어도 셋트의 效果없는 그 劇은 充分히 할 수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建築物에 있어서 環境은 큰 影響力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一生에 단 한 번이라도 멋 있는 집을 設計해 봤으면 하는 所望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果然 이것이 나의 作品이라고 멋뻐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몇이나 있을까? 나의 경우 하나도 없다고 生覺한다.

現實이란 障壁이 恒常 우리 눈앞을 가로막고 있는 以上 멋진 創作은 期待할 수 없다. 그렇다고 現實에 아무만 할 수도 없고, 無視할 수도 없는게 우리의 立場이요, 解決할 問題인 것이다. 집이 環境과 잘 調和될 때, 멋이 生진다는 것과 같이 建築家가 現實과 잘 隔和하였을 때 멋있는 집을 創作할 수 있다 하면 過言일까?

\* \*

要는 自然의 모든 眞理는 가장 純粹한 바탕을 根源으로 생겼다고 본다. 人爲的 造作의 可能性도 이 데두리는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멋의 眞理도 가장 單純하고 自然 속에 있다고 본다.

製圖板上에서 線과 씨름하는 以上 形態나 色을 잘 꾸미려고 努力하는 以上 우리는 自然과 妥協할 수 있는 姿勢가 必要한 것이다.